



GDP대비 재정적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부채는 증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2011년부터 시행된 재정긴축으로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.

- 유럽연합(EU)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유로지역 17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4.1%를 기록하여 2010년 6.2%보다 하락함.
- 또한 EU 27개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4.4%로 2010년 6.5%보다 감소
- 모든 지역에서 재정적자비율이 하락하였고,¹⁾ 특히 재정위기국의 재정적자비율도 하락함.
 -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 대비 30.9%에 달하였지만, 2011년 13.4%를 기록하여 EU 국가 중 적자 폭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.
 -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GDP 대비 4.1%에서 0.8%로 감소하여 EU 내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그리스의 재정적자도 같은 기간 GDP 대비 10.7%에서 9.4%로 소폭 줄어들었음.

■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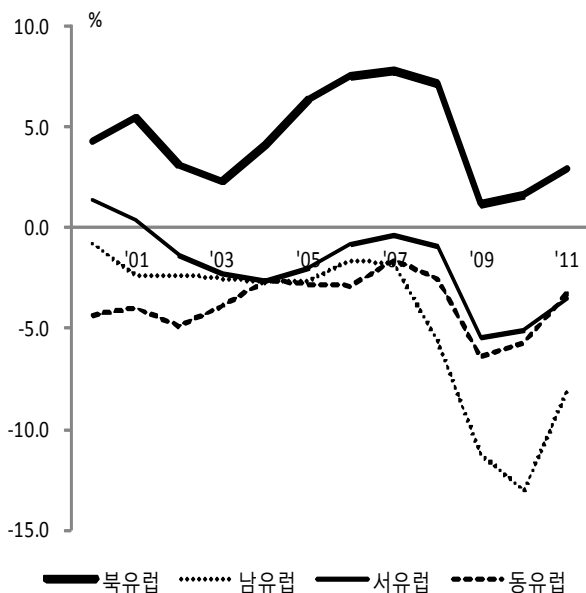
- 유로지역 17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10년 85.4%에서 2011년 말 87.3%로 상승함.
- EU 27개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82.5%로 전년대비 2.5%p 상승함.
- EU 27개 국가 중 6개국만 정부부채비율이 하락하였고 나머지 21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상승함.
 - 노르웨이(-14.7%p), 라트비아(-2.3%p), 독일(-2.0%p), 스웨덴(-1.1%p), 에스토니아(-0.6%p), 헝가리(-0.4%p)의 정부부채비율은 전년대비 하락함.

■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함.

1) 북유럽지역은 재정적자비율이 상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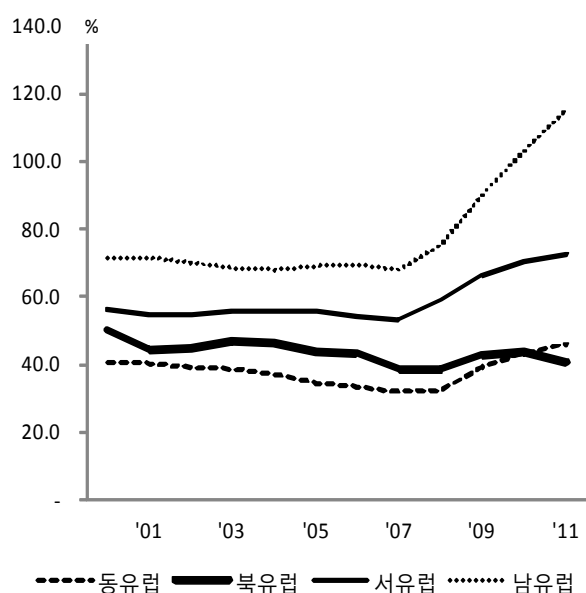
- 코메르츠뱅크는 유럽 대다수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첫째, 재정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며 둘째, 경기침체와 각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경제규모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.²⁾
- 결국 일부 채무 탕감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1〉 GDP대비 재정적자비율(%)



자료: Eurostat.

〈그림 2〉 GDP대비 정부부채비율(%)



자료: Eurostat.

(Eurostat 10/22, NYT 10/22)

2) 정부부채비율 = 정부 부채 / GDP, 정부 부채가 증가하지 않아도 GDP가 감소하면 부채비율은 상승함.